

濟州島에 대한 國際的 關心과 研究

—人文·社會科學 分野—

韓 相 福*

제주도에 관한 국제적 관심과 연구는 기본적으로 우리 자신의 안쪽과 외국이나 외국인들의 바깥쪽에서 생기는 매력과 필요에 의해서 의도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그런데 제주도에 대한 외국이나 외국인들의 국제적 관심은 아주 오래 전부터 지대하였지만, 제주도에 대한 국제적 연구, 특히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비교연구와 공동연구 또는 국제학술교류는 비교적 최근에 와서 시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필자는 우선 제주도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역사적으로 개관해 보고, 제주도에 대한 국제적 연구의 사례를 살펴본 다음, 제주도에 대한 국제적 관심 및 국제적 연구의 전망과 과제를 우리 자신의 안쪽과 바깥쪽에서 조망해 보기로 하겠다.

1. 濟州島에 대한 國際的 關心

제주도가 '耽羅' 또는 '섬나라'로서 하나의 독립국가로 성립되어 있었던 시기부터 제주도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국제적 관심은 아주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우리 나라의 「高麗史」를 비롯하여 「日本書記」「元史」「唐書」 등에 나타난 제주도에 관한 기록들은 일본과 몽고, 중국, 동남아 등의 가까운 주변 국가들이 일찍부터 제주도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가지고 접근했음

* 서울大學校 人類學科 教授

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가까운 주변국가들 뿐만 아니라, 멀리 서양의 여러 나라에서도 오래전부터 제주도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가지고 접근했음을 많은 기록들이 증명해 주고 있다. 우선 제주도에 관한 서양 사람들의 관심과 지식은 대체로 海洋과 관련된 항해·탐사·측량·지도 특히 海圖作成에서 비롯하였다(韓相復 1988과 Nemeth 1988 참조). 예를들면 화란인 벨트브리(Jan Janse Weltvree 한국명 朴淵)는 뱃사공으로서 1627년에 오우벨켈크(Ouwerkerck) 船을 타고 일본으로 항해하던 중 제주도에 漂着하여 나중에 한국에 귀화하고 우리나라 여자와 결혼하여 남매를 낳았으며, 화란인 하멜(Hendrik Hamel)이 제주도에 표착했을 때 거기에 倣國되기도 하였다. 하멜은 1653년에 스팔베르(Sparwehr) 船을 타고 대만을 거쳐 일본 나가사키(長崎)로 항해하던 중 폭풍을 만나 제주도에 표착하여 9개월동안 머물다가 육지로 호송되어 14년 동안 억류생활 끝에 탈출하여 1668년에 「蘭船濟州島難破記」(일명 하멜漂流記)를 써서 和蘭語는 물론 英·獨·佛譯本까지 출판되어 서양 사람들에게 제주도와 한국에 관한 지식을 전파시켰다. 제주도가 켈파트(Quelpart)라는 이름으로 서양세계에 알려진 것은 바로 이 「하멜표류기」가 출판된 이후부터이다. 그리고 1665년에 「中國地圖帖」을 펴낸 마르티니(M. Martini)는 대한반도 남쪽에 커다란 섬 하나를 그려놓고 풍마(Fungma)라고 표기함으로써 제주도가 켈파트 대신에 풍마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게 되었다. 풍마는 그 당시 중국인들이 제주도를 가리키는 말이었다고 한다.

그 뒤에 불란서의 부솔(Boussole)호와 아스트로라브(Astrolabe)호의 함장 라 페루즈(Jean Francois de Galaup Comte de La Prouse)가 1787년 5월에 제주도 동남쪽을 탐사하면서 스케치하고 한라산의 높이를 약 6천피트로 측정 한 사실들이 「라 페루즈 航海記」(1797) 4권에 기록되어 있고, 영국의 브로우튼(William Robert Broughton) 일행은 1797년 10월에 제주도의 북서쪽과 남단을 조사 측정하였다. 또 1816년 9월에는 암허스트(Sir Jeffery Amherst)경이 중국의 북경에 특사로 갈 때 알세스트(Alceste)호 함장 막스웰(Murray Maxwell)과 군의관 맥레오드(John McLeod) 및 리라(Lyra)호 함

장 홀(Basil Hall)이 우리 나라의 서해와 남해를 조사하고 그들의 항해기(1817 및 1818)에 제주도에 관한 기록을 남긴 바 있다. 1845년 6월부터 7월에 걸쳐 제주도의 牛島에서 본격적인 측량작업을 한 영국 사마랑(H.M.S. Samarang)호의 선장 벨처(Edward Belcher)는 한라산의 높이를 6,544피트로 측정하고 오클란드山(Mount Auckland)이라 부르고, 우도에 대해서는 뷰포트島(Beaufort Island)라는 별명을 붙였으며, 거의 완벽한 제주도 海圖를 작성하고, 「사마랑號 探查 航海記」(1848) 2권을 출판함으로써 제주도를 또한 서양 세계에 알렸다.

그 밖에도 러시아의 곤차로프(Ivan A. Goncharov, 1854)가 남긴 제주도에 관한 기록, 주한미국 사절단의 일원으로 한국에 와 있던 샤일·롱(Colonel C. Shail-Long)의 제주도 방문기 「한국에서 제주도로」(1890), 독일의 신문기자 주한 특파원 겐테(Siegfried Genthe)박사의 제주도 방문과 한라산 등정기(1901), 제주도의 야생동물 생태를 조사하고 「제주도에서의 40日」(1914)이라는 방문기를 남긴 앤더슨(Malcom P. Anderson), 관광과 군사 경찰의 목적으로 1930년에 수개월간 제주도를 방문하고 영어와 독일어로 세편의 방문기사(1933, 1935)를 쓴 독일군 장교 스토르너(Walther Stotzner), 선교사의 부인으로서 제주도 방문기 「한국의 제주도」(1937)를 쓴 식물학자인 스미스(Lura McLane Smith) 여사등은 일찌기 제주도에 관한 여러가지 문물과 사실들을 서양 사람들에게 소개함으로써 제주도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불러 일으킨 선구자들이다.

일제시대에는 많은 일본인들이 식민지 통치와 관광 및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제주도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수많은 기록들을 남겼다. 그러나 해방 이후 특히 최근에 외국 사람들의 제주도에 대한 국제적 관심사는 주로 관광 및 그와 관련된 사업상의 투자에 기울어지고 있는 실정인 것 같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만도 영국의 런던 타임즈(The Times, 1981. 8. 3), 일본의 영자 신문 아사히석간(Asahi Evening News, 1981. 8. 21) 기사라든가, 1983년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제주 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 「濟州道 地域開發을 위한 國際學術會議」에서 발표된 한국·중국·일본·미국·기타 외국

인들의 주제발표 논문들이 모두 제주도의 관광자원 개발과 지역개발에 대한 관점에서 나온 것들이다.

2. 濟州島에 대한 國際的 研究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제주도에 대한 국제적 연구가 체계적 과학적으로 시도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인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일제시대에 일본인 학자들과 조선총독부가 주관하여 제주도의 언어·역사·지리·가족·친족·해녀·촌락·공동체·농업·목축·기타의 산업·신화·전설·민요·신앙과 의례, 특히 巫俗과 관련된 민속과 民具 등에 관한 단편적 또는 종합적 조사 연구 보고는 많이 있다. 해방후에도 이즈미 세이이찌(泉蹠一)의 「濟州島」(1966)를 비롯한 일본인 학자들의 개별적인 논문과 저서들이 간혹 있기는 하지만, 일본인 이외의 다른 외국인 학자들이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제주도를 조사 연구한 업적은 아주 최근에 나오기 시작하였다. 「濟州島 文獻目錄 I : 人文·社會科學分野」(1968)와 「解放後 濟州研究概觀」의 어문학·민속분야(1982), 역사·고고분야(1983), 사회과학분야(1985)에 나타만 것만 보더라도 조지 C. 툴리의 “한라산 국립공원을 위한 제언”(1969), 더스틴(Frederic H. Dustin)의 “제주도 관광자원 개발”(1983)과 “관광 숙박시설 확장에 있어서 제주도민 참여론”(1984), 네메스(David J. Nemeth)의 미국 캘리포니아대학(UCLA) 박사학위 논문 「제주도 농민의 眺望 : 신유교 이념의 한 설계구조」(Cheju Island Peasant Landscape: An Architecture of Neo-Confucian Ideology, 1984)와 그 논문을 캘리포니아대학 출판부에서 간행한 저서 「理念의 設計構造 : 한국 제주도에 관한 신유교 사상의 뚜렷한 흔적」(The Architecture of Ideology: Neo-Confucian Imprinting on Cheju Island, Korea, 1987), “초기 서양인들의 제주도 踏驗記”(1988) 등이 눈에 띄는 정도이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1983년 7월에 개최된 “제주도 지역개발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주제발표 논문들이 첨가될 뿐이다.

이렇게 볼 때 최근 제주도에 대한 외국인들의 국제적 연구는 대부분 제주

대학교에서 초청한 외국인 객원교수들과 제주도에 관한 국제학술회의에 초대된 주제논문 발표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네메스와 더스틴은 1980년대 이후 제주대학교에 객원교수로 있으면서 제주도에 관한 박사학위 논문과 개별 논문 및 저서를 연구업적으로 내놓았다. 이들 외에도 데마르코(Anthony F. Demaro 한국명 안석호), 휘니쓰(J.M. Furniss), 서어코(Robert J. Sirko 한국명 선수일), 사또(佐藤政光), 게리거스(Stephen Lester Garrigues), 톰슨(D.R. Thomson), 스페사드(E.B. Spessard) 등 제주대학교에 객원교수로 와 있던 외국인들의 제주도에 대한 연구가 기대된다.

3. 濟州島에 대한 國際的 關心과 研究의 展望과 課題

제주도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이미 깊어졌을 뿐만 아니라 확대되었다고 본다. 오늘날 제주도민은 제주도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일본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 나가 있으며, 특히 일본에서는 한국인 사회가 형성되고 그 속에 제주도민 사회가 따로 형성되어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가까운 이웃 나라들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제주도를 찾고, 관광사업을 비롯한 각종 사업상의 투자대상으로도 제주도는 충분히 국제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적 관심의 증대는 제주도가 제주도다운 특성을 지니고 있는 한도에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제화의 추세에 따라 제주도가 제주도의 특성을 잃을 때 제주도는 더 이상 국제적 매력이나 관심의 대상 밖으로 밀려날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따라서 앞으로 관광자원의 개발이나 지역개발 또는 사업상의 투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과제는 어떤 사업에든지 제주도민이 반드시 그 계획과 실행 및 평가에 참여하여 발전과 변화 속에서도 '제주도다움'의 연속성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실질적 과제는 제주도민의 내부적인 노력과 외국인을 포함한 제주도 밖의 외부적인 노력이 조화를 이루는 데에서 성취될 수 있으며, 제주도에 대한 국제적 연구와도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

그러면 제주도에 대한 국제적 연구의 전망과 과제는 무엇인가? 인문·사회과학의 측면에서 볼 때 제주도민과 그들의 정치·경제·행정 일체를 포함하는 제주사회 및 제주문화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외부의 다른 사회와 비교 연구하는 작업이 절대로 필요하다. 그리고 비교연구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학술교류가 또한 전제된다. 따라서 제주도를 연구하는 학도들의 비교연구의 안목과 국제적인 안목은 제주도 연구의 전제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국제적 학술교류나 비교연구는 안쪽과 바깥쪽의 양면성을 함께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학술교류는 문자 그대로 학술연구와 발표의 기회를 주고 받는 호혜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조사연구의 능력과 자질에 있어서나 그런 학술활동을 지원하는 재정에 있어서나 서로 도움을 받는만큼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이다. 국제학술회의나 공동연구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학술교류와 비교연구를 함에 있어서 연구능력과 재정상의 상호협력과 이해관계에 평형이 유지되지 못할 때 한 쪽이 다른 쪽에 대한 의존 또는 종속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들의 안쪽에서 볼 때 지금까지 제주도에 관한 개인별 또는 공동연구는 어느 정도 축적이 지속적으로 되어 왔다. 인문·사회과학분야의 「濟州島文獻目錄」(1968)이나 「解放後 濟州研究概觀」의 어문학·민속분야(I, 1982), 역사·고고분야(II, 1983), 사회과학분야(III, 1985)에 나타난 것만으로도 양적으로는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음이 분명하다. 더구나 제주대학교 부설 탐라문화연구소의 2차에 걸친 학술회의에서 제 1차로 역사·윤리·가치관·민속·풍토·민요·自衡·문화 부문에서의 「耽羅精神探究」(1979)에 관한 세미나를 갖고, 제 2차로 역사학·고고학·민속학·사회학·행정학 부문에서 「濟州島研究의 現況과 展望」(1983)에 관한 학술회의를 가진 바 있으며, 제주도연구회에서도 지난 3년동안 「濟州島の 保存과 開發」(1985), 「濟州島史의 再照明」(1986), 「濟州研究의 오늘과 내일」(1987)이라는 심포지움을 개최함으로써 제주도연구의 공동 관심사를 밀도있게 논의해 왔다.

그러나 이들 조사연구와 발표의 내용과 질에 관한 평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하더라도, 제주도를 비교연구의 안목에서 접근하는 노력은 지금까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제주도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다른 사회와 민족·문화를 조사연구해서 비교 분석하는 노력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가령 島嶼民과 도서사회·도서문화의 측면만 보더라도 가까운 일본과 대만·동남아 여러 나라와 남태평양 섬나라들과의 비교연구는 하나의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이러한 조사연구 활동에 재정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따라서 재원을 안쪽에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또한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하겠다.

제주도에 대한 비교연구와 국제학술교류를 바깥쪽에서 볼 때에도 아직은 전도가 요원한 상태에 있다. 외부에서 제주도에 대한 연구의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들 자신의 실리가 우선 고려되겠지만, 최소한 안쪽에서의 철저한 준비와 요구도 필요조건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앞에서 지적한 제주대학교의 몇몇 외국인 객원교수들이 제주도를 연구하게 된 것도 실은 그러한 논리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싶다. 따라서 앞으로 바깥쪽에서 외국인 객원교수나 연구자 또는 국제학술교류의 목적으로 초청되는 사람들에게 선택적으로 제주도 연구의 과제를 주고, 안쪽 사람들과의 공동연구 또는 비교연구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제주도를 연구하는 안쪽의 사람들이 외국에 객원교수나 공동연구 또는 비교연구의 목적으로 나갈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도 국제학술교류의 한가지 방안이 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안쪽에서 그러한 효과와 실리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먼저 바깥쪽에 그러한 여건을 제공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수도 있다. 다만, 그 어느 경우이건 간에 국제학술교류를 통해 큰 효과와 실리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의 내부적인 조사연구 능력과 자질을 높이고 넓고 긴 안목을 갖추는 일이 더욱 시급하다고 하겠다.

때늦은 느낌은 있지만, 우리는 바야흐로 지금 제주도연구회 창립 10주년 기념 및 제 4회 전국학술대회를 맞아 「국제화시대의 제주도연구」라는 주제를 가지고, 3일동안 인문·사회과학 분야와 자연과학 분야에서 주제강연과 주제발표를 하게 됨으로써, 제주도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연구, 특히 비교연구의 내적인 노력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參 考 文 獻

- 金榮敦·高南旭·夫萬根·申幸澈·金泰保·許鐵洙, 1985. “解放後 濟州研究概觀 Ⅲ: 社會科學分野”, 耽羅文化 第4號, pp.271-427.
- 金榮敦·申幸澈·姜榮峯, 1982. “解放後 濟州研究概觀: 語文學·民俗分野”, 「耽羅文化」創刊號, pp.185-235.
- 金宗業·權仁赫·高昌錫·金容完, 1983. “解放後 濟州研究概觀 Ⅱ: 歷史·考古分野”, 「耽羅文化」第2號, pp.285-328.
- 롤리, 조지 C. 1969. “한라산국립공원을 위한 제언”, 「濟州道」44.
- 濟州大學附設 濟州道問題研究所, 1968. 「濟州島文獻目錄 I: 人文·社會科學分野」, 濟州: 濟州道問題研究所.
- 韓相復, 1988. 「海洋學에서 본 韓國學」, 서울: 海潮社.
- 泉靖一, 1966. 「濟州島」, 東京: 東京大學 東洋文化研究所.
- Anderson, Malcom P. 1914. “Forty Days in Quelpart Island,” *Overland Monthly*, New Series 63, pp.392-401.
- Belcher, Edward, 1848. *Narrative of the Voyage of H.M.S. Samarang, During the Years 1843~1846: Employed Surveying the Islands of the Eastern Archipelago*. London: Reeve, Benham, and Reeve.
- Chaille-Long, C. 1890. “From Corea to Quelpart Island: In the Footprints of Kublai Khan,” *Bulletin of the American Geographical Society*, 22-2, pp.218-266.
- Dustin, Frederic H. 1983. “Cheju Resources Exploitation: Relating Cheju Resource Development to Projects Within the Scope of Local Entrepreneurs,” 「耽羅文化」第2號, pp.161-179.
- _____, 1984. “Cheju Island’s Human Resources in the Expansion of Tourist Accomodations, with a Criticism of Centralized Development Based on an Assessment of the Island’s Tourism Potentials and Advantages,” 「耽羅文化」第3號, pp.157-176.
- Hall, Basil, 1818. *Account of A Voyage of Discovery to the West Coast of Korea and the Great Loo-Choo Island*, London: John Murray.
- Hamel, Hendrik, 1668. *Relation du Naufrage d’un Vaisseau Hollandois*. Amsterdam. (「蘭船濟州島難破記」, 李丙燾 譯 「하멜漂流記」, Gari Ledyard, *The Dutch Come to Korea. Transactions*, Seoul: Royal Asiatic Society and Taewon Publishing Company, 1971).

- McLeod, John, 1817. *Voyage of His Majesty's Ship Alceste to China, Corea, and the Island of Lewchew*. London: John Murray.
- Milet-Mureau, 1797. *The Voyage of La Pérouse*, 4 vols. (Translated in English in London, 1780).
- Nemeth, David J. 1984. *Cheju Island Peasant Landscape: An Architecture of Neo-Confucian Ideolog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 _____, 1987. *The Architecture of Ideology: Neo-Confucian Imprinting on Cheju Island, Korea*.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_____, 1988. "Some Early Western Travellers to Cheju Island," 『耽羅文化』 第7號, pp.153-180.
- Nemeth, David J. and Ernst G. Niemann, 1982. "Siegfried Genthe's Cheju Odyssey: a Precis of a Travel Account Written by the First European to Climb Korea's Mt. Halla," *Journal of Asian Culture* 6, pp.73-103.
- Smith, Lura McLane, 1937. "Quelpart, Korea," *The Korea Mission Field* 33, pp.76-80.
- Stotzner, Walther, 1933. "Have You Been to Quelpart?," *Asia* 33-7, pp.412-417.
- _____, 1935. "Steingotter wachen über Quelpart," *Die Umschau* 39, pp.778-779.